‘영생의 확신’ 말고 ‘영생의 느낌’

(시편 21:1~13)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영생의 확신’ 말고 ‘영생의 느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영생의 확신’ 말고 ‘영생의 느낌’

어제는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에 부르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래의 핵심주제는 사명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영토확장이나 국토수호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에 임하는 자신의 위치를 제3자로 객관화시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인 전쟁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치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의미에 맞추어서 사명의 전반부가 수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명의 전반부는 내 마음이 전쟁의 승리를 따로 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전반부가 온전히 수행됨으로 전쟁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로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사명의 후반부가 이루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우선적인 현실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어제는 전쟁 전에 부른 노래였다면 오늘 노래는 전쟁을 승리한 후에 부른 것입니다. 사명을 수행해서 그 결과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를 계기로 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석서들의 해석처럼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눈치 챌 수 있듯이 사명수행의 결과가 영생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노래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객관화 시키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라고 합니다. 6절에도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하였던 기쁨의 내용이 4절과 6절의 '영원한 장수로소이다'와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라는 표현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땅에서 참 사명의 삶을 사는 자는 곧 하늘에서의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늘에서 영생을 얻은 자만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의 삶을 통해서 땅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생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사명수행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으니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주석서들이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이 틀린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칠십 인 제자를 파송하시던 때를 생각해봅니다. 이때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 훈련기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미리 해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칠십 인의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명령을 주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자 "칠십 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은 사명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영생 얻은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도 이와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명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사명완수의 순간에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으로 기뻐합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석서나 많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사명수행의 결과로 승리와 성취가 확연하게 눈앞에 나타날 때에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자는 자기를 제3자로 객관화시키는 마음을 가집니다.

먼저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의미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로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의 전반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운 뒤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명수행의 결과는 곧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취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영생을 얻은 기쁨이 곧 땅에서 사명의 성취와 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을 간구하여 병자를 고쳤다면 우리는 그 병자가 고쳐진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단절되고 아예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쳤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추앙하려 하자 깜짝 놀라며 물리쳤던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을 다 챙겨버린다면 사탄의 수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전도폭발 훈련을 직접 받아보았지만 머리에 남는 것은 질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대화를 여는 질문이 “당신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도는 곧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느낌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정으로 삶으로 영생의 느낌을 증거 해야 합니다. 영생의 확신은 내가 나를 속이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느낌은 사명자만이 가질 수 있고, 영생의 느낌을 갖는 자만이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칠십 인의 제자들을 사명자로 파송하신 사건에서 사명성취를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영생의 느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느낌이 있는 자가 사명을 성취할 수 있고, 사명을 성취하는 자는 영생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영생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군데군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의 번역이 불완전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라는

부분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주다'라는 뜻을 가진 '나탄(נתן)'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 주신 것과 소원을 주신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고, 그 소원에 따라 입술로 요구했을 때에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의 전반부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살겠다는 후반부를 위한 각오를 하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위해 얻으려는 것이 없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 바깥에서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내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했을 때에 달려오는 적들을 향해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왕으로서의 소원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다윗은 입 밖으로 꺼냈고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생의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의 느낌은 돈을 향한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소원이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우선 그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향한 나의 소원이 없어져야 합니다. 돈을 향한 나의 소원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돈을 바라보아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일 때에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오히려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영생의 느낌이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은 상태가 영생의 느낌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느낌을 가진 자에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룸으로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이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조명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선적 현실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느끼게 하려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입 밖으로 내어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느낌은 땅을 향한 소원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소원입니다. 9절을 보면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노함이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바라보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아도 내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원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고 손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이 되어야 할 터인데 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채찍을 들고 분노를 발하시며 성전 정화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특별히 무슨 짓을 해도 손해 보실 것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선민을 잘못 이끄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기에 그 진노가 주님 마음 안으로 전이되었던 것입니다. 그 진노를 따라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을 느끼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가 됩니다.

또한 영생의 느낌을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냄이여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원수들의 존재감이 작아지다 못해 없어져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첫 번째로 영생의 느낌에서 세상에 대해 원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영생을 받은 자와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접촉할 때에 느낌이 달라야 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나는데 이게 영생의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나 원수나 대적이 무척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존재감이 제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몸이 죽는 것조차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극히 사소한 사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에 의미가 있다면 이제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에베소서의 말처럼 하늘에 앉힌바 된 상태입니다. 천국 보좌에 앉아계신 주님 안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호수 위에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발을 젓고 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생활화를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육체의 죽음은 종이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히리브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영생의 느낌 중에 육체의 죽음을 사소하게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빨리빨리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일

뿐,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책 읽다가 종이 한 장 넘기는 것처럼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는 것이 크게 느껴져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마음이라면 영생의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영생을 느끼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장수를 약속 받았다고 했지만 칠십 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는 비교적 길게 산 편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석서들은 영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기계적으로 상습적으로 다윗언약과 연관을 시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예언은 메시아의 예언을 포함하지만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수행한 자는 반드시 영생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앞서 본 히브리서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담이 있다면 내가 오늘까지의 삶에서 사명수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진 않았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느낌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갈 것으로 여기며 지금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금 나에게 느낌을 주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손님을 맞이할 때에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생의 느낌을 가지고 일용할 영생, 일용할 사명으로 하루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생을 착각일 수도 있는 확신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받은 영생을 풀어놓고 영생의 느낌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땅에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느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